

## 제 2 회

# 韓日 原子力産業세미나 開催

### 調和있는 國際協力 韓国 2000년에는 高速増殖炉

当 會議와 日本原子力産業會議가 共同으로 開催하는 韓日原子力産業세미나가 작년에는 東京에서 11月 10日~11日까지 日本原産 會議室에서 열렸다. 兩국의 原産이 교대로 開催地를 바꾸어 開催되는 本 세미나는 79年 4月26日~28日까지 釜山에서 열린 第 1회에 이어 두번째 열린 것이다.

金鍾珠副會長 (韓國重工業 首席副社長)을 團長으로 20名이 參加한 本 세미나의 成果를 살펴본다.

「原子力産業에의 期待」, 「安全性」, 「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線 利用」等 5個 Session과 綜合討論에서 兩국의 現況등에 對해 活潑한 討論이 展開되어 今後 兩國 原子力産業의 發展에 기여했다고 본다.

開會에서 이번 세미나 開催 準備를 한 一本杣 珠璣 日本産業 常任顧問(日本原子力發電(株) 取締役·相談役)은 人事말을 통해 「지금 韓國의 目標은 重工業의 確立」이라 말하고 「그에 따른 充分한 에너지, 特히 電力의 充分한 供給이 不可欠하다. 石油代替에너지 源으로서 結局은 原子力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는 世界的 背景을 생각하면 韓國은 지금 實際로 소용되는 現實的인 立場이기 때문에 輕水炉의 技術開發과 國產化를 向해서 着實히 自信을 가지고 前進하리라고 생각한다. FBR開發에 對해서는 原子力先進國의 努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韓國이 取할 基本的인 對策에 對해서 솔직히 意見을 피력했다.

繼續해서 金鍾珠團長은 人事말을 통해 에

너지 危機로부터 世界的으로 景氣가 一時的으로 後退하고 있다고 말하고 「先進工業諸國은 開發途上國이 最小限의 石油로 經濟發展을 계속할수 있도록 에너지保存과 同時에 原子力開發에 積極的인 政策을 펴서, 石油消費削減에 協力해야 한다. 原子力 平和利用의 円滑한 實施는 단지 個個 國家에서 하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國際的 베이스로서의 調和있는 努力이 必要하다. 既使用 燃料·貯藏과 廢棄物処分等 國際的 協力을 要하는 問題가 많다」고 平和利用의 國際協力の 必要性을 強調했다. 뒤이어 第 1 Session에서 金團長은 「韓國에 있어서 原子力産業의 將來」라는 題目에서 韓國의 現況과 將來의 展望을 밝혔다. 이에 依하면 韓國의 原子力發電은 現在 古里에서 58萬 7000Kw 1基를 稼動中이며, 63萬~90萬Kw級 6基를 建設中이며, 95萬Kw 2基의 契約도 끝내고 있어 1991年까지 14基, 總電氣出力 50% 以上을 原子力으로 供給할 予定이다.

電源開發을 推進함에 있어서 적어도 50年後를 내다보는 長期 計劃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安定供給, 無公害, 低廉」이라는 것을 國民에게 納得시키며, 가장 바람직한 電力需給計劃을 세워 現在와 未來를 連結하는 線上에 中期내지 長期的 計劃을 세우려는 견해를 밝혔다.

具體的으로 2030년에는 FBR에 依한 原子力이 主된 에너지源이 되어 副供給源으로 再循環에너지, 再生利用 에너지가 될 것으로 予側했다. 또 今回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韓

국의 放射性同位元素(RI)·放射線 利用 狀況이 紹介되었다. 그에 依하면, 韓國에서는 1960年頃부터 工業, 醫學, 農業의 分野로 始作했다. 1980年 4月 現在, RI利用者는 168個所이며, 利用分野로서는 工業이 109, 醫學이 35, 研究, 教育이 21個所로 從事者는 2,347名이다. 放射性同位元素는 金 198, 이리듐 192, 옥소 131等 9種類 340Ci를 原子力研究所에서 生産하는 外에 欧州, 美國, 캐나다 등에서 아메리슘 241, 트리튬, 코발트 60等 30種 16,000Ci를 輸入하고 있다.

醫學利用으로서는 암치료용의 코발트60施設을 保有한 綜合病院이 12, 線型加速器를 가진 病院이 3個이다. 加速器는 아직 工業利用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RI取扱技術者는 ① 一般免許, ② 特殊免許, ③ 監督免許를 取得해야 하며 ①의 免許所持者는 682名, ②는 765名, ③은 228名으로 모두 1,275名이다.

동 세미나에 참가한 한국측 대표단과 주제 발표자 및 내용은 아래 프로그램과 같다.

### 韓國側 參加者名單

1. 金鍾珠(團長,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副會長, 韓國重工業 首席副社長)
2. 金承根(副團長, 大宇엔지니어링 社長)
3. 朴肯根(韓國標準研究所 所長)
4. 高重明(現代建設 副社長)
5. 李昌健(韓國에너지연구소 原子爐 工學部長)
6. 鄭甫憲(韓國電力 古里原子力發電所長)
7. 李基淳(韓國에너지연구소 核燃料組立室室長)
8. 裴洵勳(韓國重工業 專務理事)
9. 李大熙(三星그룹 顧問)
10. 白善鈺(現代建設 理事)
11. 金炳涓(General Electric 韓國支社 理事)

12. 李禎久(韓國重工業 部長)
13. 金炳度(科學技術處 原子力安全課長)
14. 宋俸鉉(科學技術處 原子力企劃課 事務官)
15. 鄭夏雄(現代建設 部長)
16. 趙性哲(現代重工業 次長)
17. 蔡和默(國產機工 副社長)
18. 白英鉉(國產機工 理事)
19. 鄭明朝(韓一原子力用役 社長)
20. 張秀澈(韓國原子力産業會議 振興센터 所長)

## 第二回 韓日原子力産業 Seminar Program

(基調테마: 原子力産業의 역할과 展望)

일시: 1980. 11. 10~11일

장소: 日本 東京都 千代田區 大手町 1-5-4  
安田火災大手町빌딩 日本 原子力産業會議 회의실

주최: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日本原子力産業會議

11月 10日(月)

△開 會

日本側 人事: 一本松·珠璣(日本原子力産業會議 常任顧問)

韓國側 人事: 金鍾珠(韓國原子力産業會議 副會長)

△Session 1. 原子力産業에의 期待

座長: 白澤 富一郎(日本原子力産業會議 副會長)

○韓國에서의 原子力産業의 將來: 金鍾珠

○原子力發電과 原子力産業의 展望: 渡部 時也(日本原子力委員會 委員)

○質疑応答

△Session 2. 發電爐 I

座長: 朴肯植(韓國原子力委員會 常任委員)

○原子力發電所의 建設經驗: 高重明(現代建設 副社長)

- 原子力發電所의 建設經驗：濱口俊一(関西電力 常務取締役)
- 原子力發電所의 運轉經驗：鄭甫憲(韓國電力 古里原子力發電所長)
- 玄海原子力發電所의 運轉經驗：白石晶一(九州電力 玄海原子力本部長)

### △Session 3, 發電炉 II

座長：神原豊三(日立製作所 顧問)

- 韓國에서의 核燃料成型加工技術(韓國核燃料開發公團 核燃料組立体 室長) 組
- 日本에서의 PWR의 改良과 標準化：飯田庸太郎(三菱重工業 取締役)
- 日本에서의 BWR의 改良과 標準化：青井紓一(東京芝浦電氣 取締役)
- FBR開發의 現況과 將來：小島孝(電氣事業 联合会 高速增殖炉開發準備室長)
- 質疑応答

18:30~20:00 Reception: 日本工業 俱樂部 三層 中食堂

11月 11日(火)

### △Session 4, 安全性

座長：高重明(現代建設 副社長)

- 原子力發電所의 安全確保：村主進(原子力工学試驗센터 原子力安全解析所長)
- 原子力發電所의 安全確保：李昌建(韓國原子力研究所 原子炉工学部長)
- 質疑応答

### △Session 5, Radioisotope과 放射線 利用

座長：加藤正夫(東京大学 名誉教授)

- 日本에서의 放射性同位元素와 放射線利用의 現況：望月勉(日本 原子力研究所 理事)

- 韓國에서의 放射性同位元素 利用：金炳度(韓國科學技術院 原子力安全課長)

○質疑応答

### △綜合討論

座長：金鍾珠(韓國原子力産業會議 副會長)  
石橋周一(九州電力 副社長)

- 放射性廢棄物의 処理処分に 관하여：阪田貞弘((株)日揮 原子力事業本部 副本部長)
- Seminar發表者와 下記人의 自由討論  
一 池亀 亮(東京電力 原子力建設部長)  
一 是井良郎(組立製作所 原子力事業部長)

### △人力養成 窓口문제 協議

韓·日 原子力産業會議 關係者 參席

11月 12日(水)

午前：川崎市 所在 東京芝浦電氣(株)東浜事業所 訪問

午後：茨城縣 組立市 組立本社工場 및 研究所 訪問

11月 13日(木)

午前：日本原子力研究所 東海研究所 訪問

午後：動力炉·核燃料開發事業團 大洗工學센터 訪問

11月 14日(金)

午前：九州電力 玄海發電所 訪問

午後：호텔 뉴우 오다니(博多)宿泊

11月 15日(土)

午前：日本 原子力産業會議 案内로 觀光

1500：福岡空港 出發

1610：金浦空港 도착 視察團 解散